

방통위, 직장인 디지털윤리 토크콘서트 개최

- 생성형 인공지능(AI)의 윤리적 활용법에 대한 맞춤형 직장인 교육

방송통신위원회(직무대행 김효재 부위원장, 이하 방통위)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황종성, 이하 NIA)과 함께 7월 26일 엔에이치엔케이씨피(이하 NHN KCP) 임직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디지털윤리 교육 및 토크콘서트를 열었다.

방통위는 지난 6월부터 직장인을 대상으로 디지털 혐오표현, 디지털성범죄, 허위조작정보, 생성형 인공지능(이하 AI) 윤리 등 디지털 역기능을 주제로 디지털윤리 인식제고 및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오늘 교육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생성형 AI 윤리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전창배 이사장(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이 ‘직장인의 생성형 AI 윤리적 활용법’에 대해 강연하고,

방통위 디지털윤리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크리에이터 도티(나희선)의 진행으로 ‘직장인의 디지털윤리 고민과 해결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토크콘서트도 열렸다.

바쁜 직장인들의 점심시간을 활용한 편안하고 즐거운 도시락 회의(브라운백 미팅) 형식의 진행과 디지털 윤리에 대한 궁금증을 함께 이야기하는 쌍방향 소통 방식은 참석자들의 열띤 호응과 공감을 이끌어냈다.

교육에 참여한 NHN KCP 직원들은 “생성형 AI를 업무에 활용하면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지만, 어떻게 써야 올바른 것인지 몰라서 망설였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챗지피티(ChatGPT)와 같은 생성형 AI를

쓸 때 부정적인 측면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다. 앞으로 윤리적인 부분도 고려해서 책임있게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교육 후기를 남겼다.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일상생활 등 많은 부문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직장인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디지털 세상을 누릴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과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 직장인 디지털윤리 교육 및 토크콘서트 개최 계획(안). 끝.

담당 부서	인터넷이용자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명진 (02-2110-1660)
		담당자	사무관	전혜정 (02-2110-1522)



◇ 직장인의 건전한 디지털 윤리의식 제고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맞춤형 디지털 윤리교육 및 토크콘서트 추진

□ **목 적**

○ 최근 이슈로 부상한 생성형 AI의 윤리적 활용법과 디지털 역기능 사례, 대응 방법 등에 대한 교육 및 토크콘서트 추진

※ 성인의 사이버폭력 경험률은 9.6%로 청소년(41.6%)에 비해 낮으나, 사이버폭력을 재미나 장난으로 인식(39.2%)하는 등 심각성과 죄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2022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 **개 요**

○ (일시) '23. 7. 26(수), 12:00~13:15 * 브라운백 미팅 형식으로 진행

○ (장소) NHN KCP 본사(서울 구로구 디지털로26길 72)

○ (교육대상) NHN KCP 임직원 100여 명

<프로그램>

사회 : 도티

시 간	내 용	비 고
12:00~12:05(05')	• 교육 소개	도티 (디지털윤리 홍보대사)
12:05~12:30(25')	• 직장인의 생성형 AI 윤리적 활용법	전창배 이사장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12:30~13:10(40')	• K-직장인을 위한 디지털윤리 토크콘서트 - 임직원 디지털윤리 Q&A - Digital Quiz "D 퀴즈 온 더 블록"	도티 전창배 이사장
13:10~13:15(05')	• 마무리	도티